

■ 교회소식 ■

1. 동호회 : 오늘 오후에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2. 몽골은총의숲 방문 : 환경부가 8월 2~7일 일정으로 몽골 은총의 숲에 다녀옵니다.
3. 신앙실천 :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6~28도입니다. 시원한 복장, 적정 조명 등의 실천을 통해 뜨거워진 지구를 식히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 떡 대접 : 변재민·이소혜 집사

교회학교 여름행사

아 동 부 : 8월 19-20일 (강화 베로니카네 집)
 청 년 부 : 8월 17-19일 (용인 향린교회 수양관)

다음 주 설교 본문	롬 9:1-5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이범석	박구병	

8월	1부 영접위원	박명제	헌금위원	서미경
	2부 영접위원	이한림 정원석 박석희 고숙이 김현영 조항미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미영		

오늘 식당 봉사	안홍숙 이증자 이수정 노성희 정현주 최재욱 안종일 홍순구		
다음주식당봉사	정영선 김애순 김경혜 안현숙 엄은경 신현일 김정훈 곽상준		
오늘설거지봉사	청파7속	다음주설거지봉사	2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2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김정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1주 】 인도 1부 : 신진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 만유의 주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겪어본 적 없는 극심한 불별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주님
 을 예배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웃들을 시원하게 하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지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대기는 후텁지근하고, 하늘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호수와
 강에는 녹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130:7,8 인도자
 ▲ 교 독 문 81. 엡 4장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김재흥 목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426.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다 함께
 ▲ 성경봉독 시51, 요6:24-35 I. 인도자
 II. 송동준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마중물 찬양대
 II. 원해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곽상준 최경미 구명자 김경혜 김기철 김금순 김나름 김미숙 김선희
 김성순 김수진 김숙희 김승현 김수진 김영옥 김영호 김인걸 문영혜 김인숙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린 김중수 이순정 김중현 성귀옥 김진우
 임미진 김철수 유영남 김태한 김필순 김현주 김형근 김홍수 김희선 남명진
 김애정 남윤경 노연정 노진래 최형경 마재국 손의나 문병욱 문홍일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신연화 박해숙 방문성 박해경 방 민 방 준 배삼순 서정순
 성지현 소광섭 송병찬 송인선 신진식 변혜정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엄소현
 왕수명 유중희 유지은 이건호 김보민 이건호 윤영주 이계선 이소순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옥 이봉옥 이성범 권현숙 이순이 이시경 이용석
 이유선 이응석 이은경 이정은 이행진 임광호 임성택 홍순위 임 영 정경래
 임주빈 최현옥 장병준 박소현 장영숙 전성호 전현선 정성식 정영경 정원석
 김현영 정현숙 조병무 송양진 진평호 최승주 조호진 최영민 이상미 최옥분
 최윤화 최종원 최철수 광권희 최형민 최희영 추현영 하현철 최성애 한상익
 정영선 허진영 홍순복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대정 강은주 강혜린 김반야 김성수 김태정 노미향 류연주 최형주 박진주
 방문성 신능수 신진식 변혜정 윤경미 윤선호 임선아 이고임 이범석 류정옥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이현죽 임영선 장현희 정영례 정재은 정학성 김현숙
 김영락(눈 수술) 남윤경(딸 유학) 무명3

생일감사헌금

채일석

녹색꿈헌금

박영림 이고임 이행진 이현민 무명1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옥수수

- 최미용

수라상에 오르는 것 엄두조차 못냈어도

굵는 백성 춘궁기를 무등 태워 넘겨주신

아랑도 하 넓으셔라 은머리칼 할아버지

정원수도 가로수도 못돼 한 철 살다 베어져도

애기엽고 자장자장 초록바람 흔드시며

옛 얘기 풀어놓으시는 알근달근 할머니

제 살점 뭉텅뭉텅 뜯겨져도 좋아라

배불리 먹고 곤히 잠든 오들보들 자식들 보며

고운 니() 가지런히 내놓고 웃고 계신 어머니

말 씬	그의 품에 풍덩	이범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289.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찢긴 마음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깨끗하고 견고한 새 마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다 함께:	아멘. 비루한 욕망의 끈을 내려놓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출발점이요 완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따라나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이범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동호회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f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믿음으로 읽는 글 ■

소중한 진주를 얻기 위한 침묵

토마스 머튼은 「관상기도」에서 어느 시리아 수도승의 말을 인용합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침묵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침묵은 햇살처럼 그대를 하느님 안에서 비추어 주며 무지의 망령에서 구해 줄 것입니다. …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침묵을 강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를 침묵으로 이끄는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

칼릴 지브란은 말합니다. “생각들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독한 마음을 떠날 때 입술에만 머물러 지내게 되고, 그럴 때 소리는 기분 전환을 위한 유희가 될 뿐입니다.”…

유다교 신비가인 시몬 베유는 말합니다. “가끔은 <주님의 기도> 첫 구절이 내 생각들을 몸에서 떼어 내어 우주 밖으로, 어떤 관점이나 견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 이 무한의 구석구석을 채우는 것은 침묵입니다.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소리의 감각보다 더 분명한 감각의 대상인 침묵입니다. 만일 어떤 소음이 있다 해도 이 침묵을 건넌 다음에야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은 침묵입니다. 저는 음악을 아주 사랑하지만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음악조차 귀에 거슬립니다. 오로지 침묵만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전율하고, 상대의 거절에 좌절하며, 감정이 들쭉이치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 가거나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일, 온전히 투신하지만 더 넓은 전망은 꿈꿀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삶이

란 말입니까? 실존주의자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인간 삶의 위대한 피상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컨대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마취시키고 싶어 한다. 이 모든 것 아래에는 무(無)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태도는 절망과 염려뿐이다.” 인간의 삶이란 얼마나 껍데기에 불과합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깊이 들어간다면 절대자를 발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을 내릴 영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삶의 궁극적 의미는 절대자를 접하고, 절대자를 발견하며, 절대자와 결합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 테야르 드 샤르댕을 비롯한 신비가들도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테야르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로지 사랑뿐이라면 우리를 아주 부드럽고 열정적이며 온전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그를 추상적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내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경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나는 경배하는 사랑, 또는 사랑의 경배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당신’만이 채워 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 나라에 다가가기 바라십니다. 피정(避靜)에 오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 앞에 설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와서 이 소중한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정녕 모든 것을 팔겠다고 말합니까?